



제네랄 후우드

편리를 파는 인스턴트 食品社

李 圭 淳

(해대製菓工業 시험실장)

제네랄·후우드(G.F)社에 한 수부로부터 편지가 날아왔다. 「인스턴트 식품(즉석식품)을 파는 것은 주부들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고객 투서였다. 이를 본 당시의 회장인 찰스 G. 모티머씨는 케익믹스의 계란성분을 제거하여 주부들이 직접 계란을 깨어 넣게끔 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위의 일화는 「간편과 시간을 판다.」는 인스턴트 식품메이커를 표방한 G.F 사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G.F.는 우리나라에도 「맥스웰하우스」 인스턴트 커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인스턴트 식품의 선구자로서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年販賣高 50億弗

G.F.의 77년도 판매고는 49億 9百 70만불로 크라프트社에 이어 미국의 식품기업 중 2위를 파크하고 있다. 77년도 총매출액은 원화로 줄잡아 2조 5천억원 순이익 2억 4천만弗(1,2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우리 나라의 식품기업

과 비교해 볼 때 그 규모의 엄청난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매출액을 보이는 식품 회사로는 미국의 크라프트社와 세계 最大를 자랑하는 영국의 유니레버社가 있고 G.F.와 치열한 판매 경쟁을 보이고 있는 스위스의 네슬社 비에트리스社 정도가 있을 뿐이다.

G.F.의 주요 제품으로는 우리의 귀에도 익숙한 「맥스웰 하우스 커피」를 비롯 「유반」「산카」등과 냉동건조 커피인 「맥심」이 전세계에 보급되어 스위스 네슬社의 「네스카페」와 쌍벽을 이루며 치열한 커피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고 커피 이외에 「젤로」「디저트」등의 디저트 식품과 「포스트 토스티스」「그레이프 넛트」등의 곡물식품(씨어리얼)과 「미어드 아이」의 상표를 가진 각종 냉동 식품과 아울러 「콜-에이드」「탱」등의 인스턴트 음료가 주요 생산 품목이고 이외에도 애완동물 식품「페트 후드」, 스낵식품 등 각종 식품 분야에 제조와 서어비스업에 나서고 있고 또한 69년에는 화장품 회사를 매수, 多角 경영의 불결을 타고

처음으로 식품의 기업경영에 나섰다.

G.F.의 본사는 뉴욕주 화이트·플레인즈에 있고 여기에서 전 미국의 38개 공장과 48,000명의 종업원에 지령이 내려지고 또한 해외의 자회사도 컨트롤하고 있다. 주력공장은 뉴·저지주의 호보켄공장으로 이의 커피 처리 시설은 세계 최대이고 휴스턴공장이 제2위를 자랑하고 있다.

9個 事業部署別 운영

경영관리는 J.L Ferguson 사장을 최고 경영자로 그 밑에 3명의 그룹 부사장과 제품별 9個 사업부와 아울러 중앙기술연구소(테크니컬 센터)를 두고 있고 각 사업부는 독립채산제로 부별 책임자에 의해 운영되며 이들은 공식적으로 부사장의 타이틀을 갖는다. 이 중 가장 주요한 것이 맥스웰하우스(Maxwell house)와 테크니컬센터(Technical Center)로 맥스웰하우스의 커피는 同社 총 매출액의 1/3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순 이익의 1/2정도가 커피에서 나온다. G.F.의 커피는 양적인 면에서 전 미국에서 판매되는 커피의 1/3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테크니컬 센터(중앙연구소)는 G.F. 전 그룹의 기술 개발 및 신제품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곳으로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연구소 요원을 거느린 미국 최대의 식품연구소로 G.F.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곳으로 G.F.의 주종 품목인(맥스웰 하우스 인스턴트 커피) 및 (맥심 커피)의 산실(産室)이고 G.F.社는 총 매출액의 1%를 연구 개발비로 책정하여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G.F.의 성장

G.F.는 1895년 William Post가 창설한 포

스텀·씨어리얼社가 전신이고 주로 그레이프넛트 등 인스턴트 씨어리얼을 생산 판매하여 즉석 식품메이커로서 초기적 발판을 굳혔다. 신흥기업으로 성장한 포스텀社는 점차 동업업종을 매수, 흡수하여 커갔고 1925년에는 맛있는 디저트 「젤로」의 제조원 제네럴 푸어·후우드社를 흡수 합병하였고 1929년 생물학자 클라렌스·버어드 아이로부터 냉동식에 관한 특허를 사들여 기업화하는 등 종합 식품 메이커로 발돋움하였다.

특히 1928년에는 조엘·치이크가 수년간 연구개발 끝에 제조 성공하여 제품화한 「맥스웰·하우스」 커피의 제조원인 치이크닐社를 흡수하여 주력 상품인 커피 제조에 손을 대었다. 1930년에 社名을 종합식품을 표방한 현재의 「제너럴·후우드」社 (General Food Corp.)로 改名, 품질과 포장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계속 유망기업을 매수 합병하여 갔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G.F.社는 커피를 끓이지 않고 끓는 물만 타면 마실 수 있는 인스턴트 커피의 연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그 개발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1939년 2차 대전의 발발과 아울러 미국 정부는 휴대에 간편하고 저장이 용이한 인스턴트 식품에 연구비가 배정되었고 이에 박차를 가하던 중 1942년 G.F.의 호보켄 공장에서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가 생산되게 되었으나 만족할만한 것은 못되었다. 그 후 수많은 개량과 연구가 계속된 끝에 1945년 봄 중전의 레귤러·커피에 비해 맛과 품질면에서 거의 손색이 없는 인스턴트 커피가 개발되어 美軍 장병의 군수품으로 각 전선에 출하되게 되었다.

2차 대전후 G.F.는 이 인스턴트 커피로 큰 히트를 하여 사세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G.F.는 2차대전후 미국의 기업중 가장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꾀하였다. 195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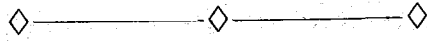
서독에 맥스웰 하우스 인스탠트 커피의 첫발을 내딛었고 이어 1956년 캐나다에 진출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프랑스, 브라질, 스웨덴, 멕시코, 덴마크, 필리핀, 스페인, 영국, 일본 등 거의 20개국에 달하는 국가에 자회사 43개를 거느리게 되었다. G.F.의 해외진출 특징은 100%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1970년 5월 G.F.는 한국에도 상륙했다. 東西食品(株)과의 合作으로 投資比率은 東西食品이 66.6% G.F. 33.4%로 G.F. 25번째의 해외투자 회사로 기록되었으나 이는 G.F.의 해외진출에 있어 「子會社完全支配」원칙에서 벗

어난 攄문 例로써 투자비율로 보더라도 G.F.의 子會社라고 보기는 어렵다.

G.F.의 해외 子會社에 대한 매출은 G.F. 그 총매출액에 매년 25%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한편 G.F.는 다각경영(多角經營)의 물결을 타고 食品서비스 분야에 진출했다. 1967년 호텔과 모텔 회사인 인·키파社를 매수, 후우드·서비스에 손을 댔는데 이어 1968년 봄에는 레스토랑·체인회사인 버커·쉐프社를 매수 본격적인 후우드 서비스에 나섰다. 또 70년에는 화장품 회사인 비비안·우다아社를 매수 처음으로 本業인 食品 이외의 분야에 진출했다.



案 內

韓國食品工業協會에서는 食品工業의 發展과 技術開發을 爲하여 研究 努力하시는 學界重鎮 및 學生, 食品分野에 從事하고 있는 많은 人士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食品工業誌를 비롯 食品衛生法規 食品添加物の 生産實績 보고양식 등을 발간, 배부하고 있습니다.

本協會가 發刊한 各種 食品 관계 刊物의 購讀을 希望하시면 製作實費(印刷費·用紙代·우송료)만 받고 供給하겠아오니 아래 要領에 의해 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① 食品工業誌 : 本文 110페이지 以內로 年 6回 發行하고 있으며 內容은 國內 食品工業의 動靜과 教授를 비롯한 各계 人士들이 執筆한 研究論文이 收錄됨. (구독료 1년분 1,200원)
- ② 食品衛生法規 : 食品衛生法을 비롯 施行令, 施行規則, 行政處分基準등을 망라. (價格 500원)
- ③ 食品·添加物 生産實績 報告書양식 : 食品製造業所가 食品衛生法 第19條의 2 第2條 및 동법 施行規則 第29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해 관계 당국에 報告해야 되는 보고서 양식. (卷當 400枚, 3,000원)

購讀申請場所 : 本協會(서울 特別市 中區 忠武路 4街 125-1. 進洋아파트 610號) 로直接오시거나 書面으로 申請해 주십시오.

代金納付方法 :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서 對替口座(計座番號 610501)를 이용하시거나 本協會로 直接 納付하시면 됩니다.

1978年 7月 日

社 團 韓 國 食 品 工 業 協 會
法 人